

# 현대제철, 美 제철소 설비·부지 확보… 3분기 착공 ‘청신호’

다니엘리와 설비 공급계약 체결  
美 정부, 직접 제철소 부지 매입  
2029년 양산 목표… 현지사업 박차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EAF) 일관제철소 프로젝트의 핵심 설비 계약을 체결하고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제철소 부지를 직접 매입함에 따라 관련 사업이 올해 3분기 착공 목표를 향한 실행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설비 발주와 부지 확보가 동시에 마무리되며 오는 2029년 양산을 목표로 한 미국 첫 생산기지 구축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미국 재활용·자원순환 산업 전문매체 리사이클링 투데이(Recycling Today)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이탈리아 설비업체 다니엘리와 6억5000만달러 규모의 제철 및 직접환원철(DR



현대제철 충남 당진 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I)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다니엘리는 루이지애나주에 건설되는 EAF 일관제철소에 에너지론(Energiron) 기반 DRI 플랜트, 2차 야금 설비를 갖춘 전기로 2기, 주조기 2기, 슬래브 재가열로 2기를 공급한다. DRI 플랜트에는 다니엘리와 테노바(T

enova)가 공동 개발한 기술이 적용되며, 천연가스·수소 환원재 사용과 이산화탄소 제거 설비를 통해 기존 고로 대비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인다. 현대제철은 생산된 DRI를 전기로에 투입해 자동차 강판용 고부가가치 슬래브를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지역 경제 전문매체 배턴루지 비즈니스 리포트는 지난 7일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제철소 예정 부지를 직접 매입했다고 전했다. 미시시피강 인근 어센션 패리시 일대 1700에이커 부지가 약 9100만달러에 주정부 소유로 이전됐으며, 해당 부지는 제철소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로 활용된다. 주정부는 부지 매입과 함께 도로 개선 및 인력 교육 인프라 구축에 총 6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현지에서도 이번 투자의 전략적 의미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미국 산업·임지 전문매체 ‘비즈니스 퍼실리티즈’는 현대제철의 루이지애나 철강 생산시설 프로젝트를 ‘2025년 플래티넘 딜 오브 더 이어’로 선정하고 지난 5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1300개 이상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 자본 투자 규모, 지역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되는

상으로 현대제철의 투자가 미국 제조업 유치 정책의 대표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현대제철은 현대차·기아·포스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루이지애나에 총 58억달러 규모의 EAF 기반 일관제철소를 건설한다. 올해 3분기 착공해 오는 2029년 양산을 목표로 하며, 완공 시 연 270만톤 규모의 자동차강판용 슬래브 등을 생산해 미국 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측은 이번 투자가 보호무역·원산지 규제 대응과 현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지 확보와 주설비 계약이 동시에 마무리되면서 착공 준비가 본격화돼 올랐다”며 “양산 일정에 맞춰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 CES 2026

## 문혁수 “자율주행 분야 등 ‘위닝테크’ 확보”

(LG이노텍 사장)

고수익·고부가 사업구조 재편 강조  
“LG이노텍, 부품 아닌 솔루션 기업”

“LG이노텍은 더 이상 부품 아닌 솔루션 기업이다. 올해는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앞세워 고수익·고부가 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 해를 만들 것이다.”

LG이노텍 문혁수 사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사장은 “올해는 고수익·고부가 사업 중심의 ‘하이 퍼포먼스 포트폴리오’ 사업구조를 정착시켜 안정적인 수익 창출 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사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본질적인 사업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신규 사업 육성을 가속화해 미래 LG이노텍을 책임질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 복합센싱, 유리기관



문혁수 LG이노텍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7일(미국 현지시간) LVCC LG이노텍 전시 부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LG이노텍

등 ‘위닝 테크(실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기술)’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전환(AI)을 가속화해 경쟁력 개선과 미래 성장 기반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사장은 지난해 12월 기관소재사업부와 전장부품사업부를 각각 ‘패키지솔루션사업부’, ‘모빌리티솔루션사업부’로 재편했다. 문 사장

이 의미하는 ‘솔루션’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방법을 총칭한다. 기존 부품 하나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포괄한 개념이다.

미래 먹거리인 유리기관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고수익 패키지 솔루션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반 기술인 유리기관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손잡고 유리기관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LG 그룹 내 계열사들과 협력 시너지를 통해서도 유리기관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이노텍이 빅테크 기업과 협업 중인 유리기관 시제품은 2028년 양산이 목표다. LG이노텍은 지난해 미국 R&D센터에 유리기관 개발을 위한 장비 도입을 마쳤고, 구미 FC-BGA 양산 경험을 통해 확보한 빌드업 기술을 유리기관에 접목해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 LG전자, TV·로봇 등 최고 제품상 휩쓸어

올레드 에보·클로이드 등 호평

LG전자가 CES 2026에서 해외 주요 매체들로부터 잇따라 최고 제품상을 수상하고 호평을 받았다.

11일 LG전자에 따르면 무선 월페이퍼 TV ‘LG 올레드 에보(evo) W6’와 홈로봇 ‘LG 클로이드(CLOiD)’ 등 제품이 혁신 기술로 관람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유럽 IT매체인 엔가젯은 “올해 CES 2026에서 많은 TV를 봤지만, LG 올레드 에보 W6처럼 발걸음을 멈추게 한 제품은 없었다”며 LG 올레드 에보 W6를 ‘최고의 TV’로 꼽았다.

IT매체 지디넷도 올레드 에보 W6에 대해 “CES 2026에서 단연코 주목 받은 제품으로, 만기 어려울 정도로 얇은 디자인을 자랑한다”고 평가했으며, 씨넷은 “전시회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TV 중 하나”라고 호평했다.

CES 2026에서 처음 선보인 ‘LG 마이크로 RGB 에보’도 글로벌 미디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리뷰 전문매체 리뷰드닷컴은 “풍부하고 생생한 색감과 놀랍도록 아름답고 밝은 화질을 제공한다”며 이 제품을 ‘최고의 테크 제품’에 선정했다.

CTA로부터 스마트홈 분야 혁신상을 수상한 LG 클로이드도 외신의 찬

사를 받았다.

IT매체 안드로이드헤드라인은 CES 2026에 출품된 전체 제품 중 최고의 제품으로 LG 클로이드를 뽑았다. 매체는 “로봇이 옷을 개는 것뿐만 아니라, 세탁기를 돌리는 등 다른 가전까지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해 CES 2026 최고 제품으로 선정했다”며 “클로이드가 갖춘 실질적인 유용성과 첨단 기술은 CES 2026 최고 기술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IT매체 디지털트렌드는 ‘최고의 기술’ 중 하나로 클로이드를 꼽았다. 매체는 “CES 2026에 등장한 많은 로봇 가운데 클로이드가 가장 화제가 됐다”며 “다양한 LG 가전제품과 상호작용하며 집안을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 더 뉴 스타리아 EV 외장

## 현대차·기아, 유럽 시장 전략모델 선포

### 벨기에 브뤼셀 모터쇼

현대차 스타리아 EV, 기아 EV2 공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 모델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는 아이오닉5, 캐스퍼 EV, EV3 등에 이어 새로운 전동화 모델을 추가하며 중국의 상하이차(SAIC)와 비야디(BYD) 등과 치열한 경쟁에 나선다. 지난해 유럽 친환경차 시장은 374만대(19.5%)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중국에 이어 2위를 지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9일(현지시간) 개막한 벨기에 브뤼셀 모터쇼에서 스타리아 EV와 EV2를 각각 공개했다.

스타리아 EV는 현대차 전기차 가운데 가장 큰 전기차다. 현대차가 유럽에서 스타리아 EV를 공개한 것은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유로 7 도입 등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기존 디젤 모델로는 현지 공략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모터쇼에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럽 시장을 위해 개발한 아이오닉3도 올 하반기 현지 시장에 출시할 방침이다.

기아도 이번 모터쇼에서 유럽 시장 전략 모델 EV2를 공개했다.

EV2는 기아가 현재 유럽에서 판매 중인 EV3보다 작은 전기차로 올해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핵심 모델이다. EV2는 아이오닉3와 마찬가지로 개발부터 양산까지 유럽 현지화한 모델이다. 기아는 2월부터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EV2를 본격 생산한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EV2는 기아 전용 전기차 중 가장 컴팩트하면서도 가장 생동감 넘치는 실내 경험과 감성적 디자인을 갖춘 모델”이라며 “차급을 초월한 넓은 공간과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으로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 EV2 외장.